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㉘ 선(禪)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그대들의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으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라 그 지 · 수 · 화 · 풍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보아버린다면 바로 가고 머무르는 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산승이 보건대 꺼릴 것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한다면 성인이란 이름뿐인 것이니라. 선을 공부한다는 어떤 사람들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한다고 하지만 틀려먹은 짓이니라.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기 때문이니 문수보살을 만나고 싶은가? 그대들 눈앞에 작용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고, 어디를 가도 의심할 것 없이 작용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니라.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의 작용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빛이 모두 참된 보현보살이요,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의 작용에서 스스로 속박을 풀어 가는 곳마다 해탈하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삼매법이니라. 문수 · 보현 · 관음 세 보살이 서로 주인도 되고 손님도 되어 출현할 때는 한꺼번에 출현하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알아버리면 비로소 경전이나 조사의 가르침을 잘 본다고 할 것이니라."

〈능엄경〉에 '반문문성(反聞聞性)'이라는 말이 있다. 25원통장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의 내용에 들어 있는 말이다. 이 말은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이근(耳根)이 성진(聲塵)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소리를 듣는가? 바깥의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성품을 들으라는 말이다.

임제도 이 장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은 사대로 구성된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를 활용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고 한다. '반문문성'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상대할 때 각각 짝하는 경계가 다르지만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냄새를 맡는 것은 동일한 성품이다. 이것을 알아버리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다. 선(禪)은 주체적 자아확립이다. 밖으로 찾을 것이 전혀 없는 내면을 향한 자기탐구라고 할 수 있다.

오대산은 예로부터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서 이 산에 문수보살이 머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오대산을 문수성지라 한다. 신라 때 중국에 들어간 자장율사도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하며 무착 문희(無着 文喜 · 811~900) 선사가 오대산으로 가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오대산으로 가다가 문수보살이 화현해 나타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말법의 비구들이 계율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대중들은 많은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불법은 어떻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있느니라."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이야."

〈벽암록〉 35칙에 소개된 이 내용은 나중에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공안(公案)이 만들어져 널리 회자 되었다.

이 외도 무착이 문수를 팥죽을 쑤던 솥에서 만나 "네 문수는 네 문수요, 내 문수는 내 문수다" 하고 주걱으로 뺨을 때렸다는 설화도 있다.

문수보살의 성지로 알려진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없다는 말까지 하여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근절시키고 일체 불보살이 자기 성품(自性)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육조단경〉의 자성삼보(自性三寶)와 자성삼학(自性三學)과 같은 뜻의 말이다. 한 생각 마음의 작용에서 스스로 속박을 풀어 가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보살의 삼매법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범부가 '三界苦' 벗어나는 길



세상 속 경전읽기

㉘ 구차제정(九次第定)

범부가 생사왕래하는 세계, 곧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의 삼계고(三界苦)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차제정[九次第定 · 아홉 단계의 정(定)]을 닦아야 한다.

음욕(婬欲)과 식욕(食欲)을 주로하고 그 외의 욕심들로 가득 찬 욕계를 떠나 색계에 이르려면 4선(禪)을 닦아야 하고, 욕심은 없지만 정묘한 물질의 장애가 있는 색계를 벗어나 무색계에 이르려면 4무색정(無色定)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물질이 없지만 심식(心識)이 있는 무색계를 벗어나려면 멸진정[滅盡定 · 滅受想定]을 닦는다.

구차제정 중 4선 · 4무색정의 8정(定)은 정도(正道)와 외도(外道) 모두 닦지만, 멸진정은 정도인 불교에서만 닦는다. 여기서의 4선은 붓다께서 대각을 이루실 때 닦은 근본4선이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반열반에 드실 때에는 초선에서 비상비비상처정까지 4선 · 4무색정을 차례로 올라갔다가, 비상비비상처정에서 초선까지 차례로 내려와, 다시 초선에서 순차로 제4선을 거쳐 입멸하셨다.

4선 중의 초선은 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라고도 하며, 곧 욕계의 이생[異生 · 번뇌에 얽매여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 곧 범부(凡夫)]이 지닌 욕망과 악과 불선법(不善법)을 떠나 언어가 멸(滅)하고, 각관[覺觀 · 심사(尋伺), 심(尋)은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 사(伺)는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의 사고작용[想]이 있고, 기쁨[喜]과 즐거움[樂]을 느끼는 경지에 머물며, 색계 초선천에 해당한다. 여기에 일심(一心)을 더해 5지(支)를 갖추고 있다. 초선에서 몸에는 팔촉(八觸), 곧 떨림[動觸], 가려움[癢觸], 가벼움[輕觸], 무거움[重觸], 차가움[冷觸], 뜨거움[暖觸], 껄끄러움[澁觸], 미끄러움[滑觸]의 느낌이 생긴다.

초선에서 제2선[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으로 들어가면, 각관이 쉬어지고, 내밀한 고요한 평화인 내정(內靜)과 삼매에서 얻어지는 희락과 일심의 4지를 갖춘 경지에 머물며, 색계2선천에 해당한다. 제2선에서 제3선[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으로 들어가면, 기쁨의 욕망[喜欲]을 여의고, 평등[捨]하여 구함 없이 노닐며, 정념(正念)과 정지(正智)로 몸에 묘한 즐거움[樂]을 깨닫는다. 이는 성인께서 말씀하신 성인의 평등 마음챙김[念]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다. 일심까지 5지를 갖추며, 색계 3선천에 해당한다.

제4선정[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에서는 출입식(出入息)이 적멸하고, 고락을 다 떠나고[不苦不樂] 평정[捨]과 순수한 알아차림[念]의 4지가 갖추어 있고, 색계 제4선천에 해당한다. 이어서 4무색정의 첫 번째인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에 들어간다.

"또한 여러분, 비구는 일체의 물질[色]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멸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량없는 공(空)으로 들어가 이 한량없는 공처를 성취하여 노닙니다. 이 때 그의 식(識)이 공지미[空智味 · 공지의 맛]에 집착하지 않아 그것에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으며, 그것을 인연하거나 묶이지 않으면, 그 식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후 일체의 한량없는 공처를 넘어 한량없는 식으로 들어가고 이 한량없는 식처를 성취하여 노닌다[識無邊處定]. 그 후 일체의 한량없는 식처를 벗어나 무소유로 들어가고 이 무소유처(無所有處)를 성취하여 노닌다[無所有處定].

"비구는 일체의 무소유처를 넘어 비유상비무상으로 들어가고 이 비유상비무상처를 성취하여 노닙니다. 이 때 그의 식이 무상의 지혜[無想智]의 맛에 집착하지 않아 그것에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으며, 그것을 인연하거나 묶이지 않으면 그 식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 비상비비상처의 차원을 초월해서 생각과 감수(感受)가 없는 선정[想受滅定]에 들어가 머문다. 그리고 이해를 통한 통찰을 얻으면 번뇌가 사라진 구차제정의 성취에 들고 또 그로부터 벗어났을 때, 최고의 통찰[지혜]을 얻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그것[최고의 지혜]은 어떤 신이나 인간도 능가할 자가 없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㉔ 닦음의 길 14

사무량심, 이웃을 내 몸처럼

〈四無量心〉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모두 이렇게만 산다면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어렵지 않게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마찰과 분란, 갈등, 대립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여러 종교에서 이기심의 소멸을 강조하는 것도 그럴 때 비로소 상대의 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비는 여기에서 나오는 값진 선물이다.

불교의 수행 역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체계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욕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것처럼, 상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상대도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인간은 '같은 마음(如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필요하다. 사무량심(四無量心) 또한 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수행이다.

사무량심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열반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행이다. 붓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해서 대자(大慈), 대비(大悲), 대희(大喜), 대사(大捨)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비희사(慈悲喜捨)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처럼 번뇌 가득한 세속에서 살면서도 여기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무량심의 첫째는 자무량심(慈無量心), 즉 무한한 자애심을 가지고 상대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실천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생을 사랑하는(慈) 마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와 내가 '하나'라는 자각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비로소 어머니가 아들을 한 몸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연기의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

둘째는 비무량심(悲無量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예컨대 벗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도 비(悲)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처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도 상대와 '하나'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이것은 자무량심과는 달리 이기심이 남아있더라도 어느 정도 실천할 수는 있다. 그 불행이 나에게 닥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불행에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셋째는 희무량심(喜無量心), 즉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수행이다. 이는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들이 승진했다고 자랑한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는가.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까지 그러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자랑은 상대가 기뻐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상대가 자랑하면 함께 기뻐하기 힘든 법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실천은 자신의 이기심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다.

마지막 사무량심(捨無量心)은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捨)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수행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는 친소, 애증의 관계에 따라 상대를 차별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모두 텅 비우고(空)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사무량심은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실천이다. 혹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족의 슬픔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함께 울고 아파했던 것이다. 수행은 그러한 공감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일이다. 사무량심은 모두가 '하나'라는 연기적 사유에 바탕을 두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확립한 수행체계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정정공고

• 사 찰 명 : 서봉사
• 재산관리인 : 명 음 (성명 : 성지현)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34(이천동 439-2)

현대불교신문 2020년 7월 8일자 14면 '탈종 공고' 및 동년 7월 15일자 14면 '바로잡습니다'는 위 본인이 종무행정 숙지 및 업무가 미흡하여 착오로 공고한 사항으로 위 2건의 공고 내용을 전면 취소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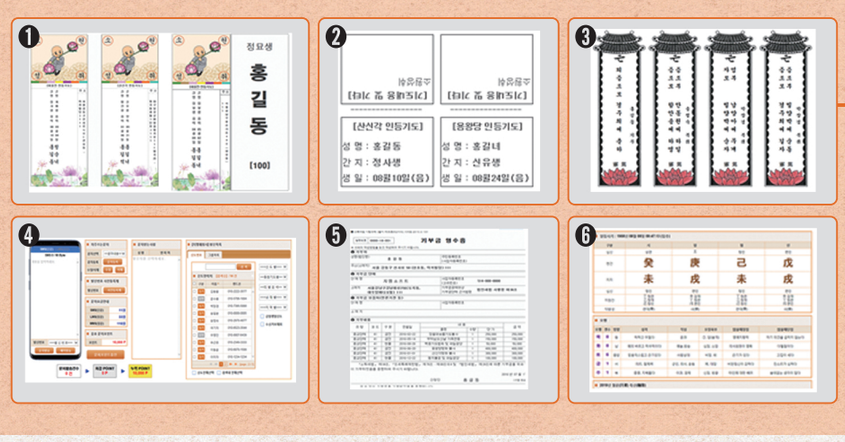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GmSoft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